"제주를 담다 미래를 읽다"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10718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11월 5일 목요일(음력 9월 26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 교통카드 단말기 통합 시스템 구축 허송세월

### 기존 '티머니'에 'ON나라 페이' 설치로 이중 구조 형성
### 도, 기존 사업자 계약 연장 구두 합의… 내년 통합 추진
### 차기 사업자 선정 방식 미정… 도 "조만간 논의 후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의 버스 교통카드 추진할 계획이다.

단말기 통합 사업이 해를 넘기게 되면서 교통카드 이용 혼선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노선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계약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제주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협의를 거쳐 기존 운영사인 티머니와의 계약을 1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계약서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을 활용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 기간 교통카드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연장 이후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기 사업자 선정 방식과 계약 구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 재개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버스운송조합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계약사인 티머니와 1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면서 "이 기간 교통카드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연장 후 업체 선정 방식과 관련한 질문에 "그 부분도 현재 버스운송조합 등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선정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서로 다른 단말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두 기능을 통합한 단말기 도입을 추진했지만,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기술적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은 보류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9월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교통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기존 티머니 계약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교통카드 이용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대응 일환으로 제주도가 최근 기존 티머니와 노선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계약을 1년 연

제주도는 지난해 10억원을 투입해 공영·준공영 버스에 'ON나라 페이' 플랫폼 하차 단말기를 설치했다. 기존 도내 버스에는 전국 호환이 가능한 티머니 단말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어린이·청소년 무료 교통복지카드 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별도 플랫폼을 추가 도입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제주지역 노선버스 내부에는 티머니와 ON나라페이 단말기가 함께 설치돼 있다. 그러나 두 단말기 간 호환이 불가능해 이용객들이 결제 방식에 따라

## 2026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 6~8일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일원서 개최

'2026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이 6일부터 8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와 산업박람회 '제주펫페어'로 구성된다.

문화축제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반려동물 동반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전문가 강연에는 6일 윤영민 교수, 7일 윤홍준 수의사, 8일 강형욱 훈련사가 차례로 나선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반려동물 멍때리기 대회, 미로 대탈출, 장애물 달리기(어질리티), 반려동물 미용 배우기 등이 마련됐다.

동물등록과 반려동물 동반 예절(펫티켓)을 알리고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는 캠페인도 전개된다.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축제 '아로타'도 함께 열린다.

'제주펫페어'에는 도내외 50여 업체가 참여해 반려동물 식품과 용품,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관람객은 반려동물 관련 상품과 최신 정보를 접하고, 참여 기업은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확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개막식은 행사 둘째 날인 7일 오전 11시 '우리의 발자국, 제주의 약속'을 주제로 열린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자연재난 대응 강화… 우려지역 집중관리

### 제주도, 오는 15일부터 겨울철 대책기간 운영

제주도가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해 재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위성곤 도지사 주재로 열린 '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태세 점검회의'에서는 겨울철 분야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여름철 풍수해·폭염·가뭄 대응 성과와 개선사항 등이 공유됐다.

제주도는 겨울철 대책기간인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결빙·제설 취약구간과 해안가 등 재해우려지역 253개소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겨울철 대설로 인한 도로 결빙과 항공기 운항 차질 등에 대비해 도로 제설과 제주공항 체류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도로 제설을 위해 소금 1만776t과 염화칼슘 2893t을 확보하고 제설차량 58대의 작동상태 점검과 주요 도로변 1752개소에 모래주머니를 비치한다. 대설 예비특보 단계부터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인공지능(AI)이 기상·노면정보 등을 분석해 제설 우선순위를 정하는 스마트 제설 통합 플랫폼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공항 체류객 발생에 대비해서는 전세버스와 긴급수송택시봉사단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운영하고 심야시간대 체류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1100도로 통제시 잔류 탐방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수송대책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재난도우미와 주민대피지원단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한파쉼터와 온열의자 등 한파저감시설의 운영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시설하우스와 축산시설, 양식장 등 재해 취약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과 긴급복구체계를 강화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 한국환경보전원 제주 이전 도, 신진수 원장에 공식 제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에 제주 이전을 공식 제안했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지난 3일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을 만나 이전 제안서를 전달하고, 공동사업 등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보전 조사·연구와 기술 개발, 환경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창흠 부지사는 기관 이전에 필요한 청사 확보와 입지 선정, 임직원과 가족의 주거·자녀 교육·교통 등 정착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제주의 자연환경 복원 연구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을 제공하고, 제주 자연환경 조사·관찰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협력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한국환경보전원에 제안했다.



**제주 찾은 겨울 손님 저어새** 겨울을 나기 위해 제주를 찾은 천연기념물 저어새들이 4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지난 2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만큼, 한국환경보전원의 환경교육 전문성과 연계한 '2027 환경교육도시포럼' 공동 개최도 제안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의 환경교육 경험과 제주의 학교·교육기관·대학·환경단체를 연계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전국 22개 환경교육도시가 참여하는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태윤기자

제주지역창업페스티벌 × 스타트업위크 JOIN2026
모두의창업 in JEJU
2026. 11. 5. Thu 13:30 ~




창업수다 : 모두의 Talk
리얼 창업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선배창업가, 멘토와 함께
'창업'에 대해 Talk Talk!
쉐라톤 제주 호텔 2F 서브홀3

LiNK-UP DAY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상담하고
초기스타트업의 IR을 현장에서!
* 2026 스타트업 열전 연계
쉐라톤 제주 호텔 8F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OREA START UP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